

사회복지에 있어서 여성주의적 시각의 필요성과 그 실천

이만식

1. 들어가는 말 : 문제제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의는 항상 개인과 사회변화,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적 안녕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중시해 왔다. 개인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관심사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창기부터 계속되는 사회복지계의 화두였던 것이다. Compton과 Galaway 역시 인간과 상황과의 상호작용(*person-situation interaction*)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이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1984:12). 그러나 이 두 관점의 통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늘날 사회복지의 분야는 임상과 정책으로, 또 매크로와 마이크로로 나뉘어져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사회복지 내의 각 분야가 서로 별개의 것으로, 또 불균형적으로, 때로는 적대적인 것으로까지 인식되며 발전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임상실천가는 정책분석가들로부터 구조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반면, 정책분석가들은 개별적인 개입의 필요성과 구체성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임상실천가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76년 미국 《사회복지 저널》에 “여성에 대한 특수한 이슈”라는 특집이 게재된 이후이다. 이 특집 이후 계속되는 논문과 단행본을 통해서, 여성주의 시각에서 제기한 성(*gender*) 역할, 여성 희생시키기(*victimization*)와 여성에 대한 폭력, 사회적 제도에 의한 전문직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 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었다(Collins, 1986:214). 그런 이유로 인하여, 지난 20여 년 동안의 사회복지 문헌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복지사들이 여성클라이언트들의 특수한 문제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여성들을 위한 실천방법에 관해서도 활발히 논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Berlin, 1987; Hanmer & Statham, 1989; Stere, 1986).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여성학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었고 하나의 독립된 학문분야로 인정되어 왔으며, 또 지금까지 여성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여성학 연구가 사회복지 분야에 접목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최근에 이르러 몇 권의 저서가 '여성복지'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으나¹⁾ 아직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연구하고 있을 뿐, 여성주의 시각에 입각한 사회복지 방법론이나 정책수립에는 못 미치고 있다.

전문적인 사회복지 영역에서 여성은 전문성의 확립과 사회복지의 실천 및 교육적 사명에 있어서 선구자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사회복지의 남성의 광범위한 사회적 지배를 반영하게 되었고 주로 남성이 교육의 지도자와 기관의 최고 관리자가 되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지식은 이러한 남성 우위의 제도적 맥락에서 발전되었고, 사회에서 여성들에 대한 특별한 쟁점들은 무시되었다. 1960년대 이래로 많은 사회복지학자, 실천가, 민중 활동가들은 그러한 남성 지배적인 견해에 도전해 왔다.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은 남성들과 다르게 세상을 경험하며, 그것도 여성이 항상 손해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왔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여성주의 운동의 표어는 여성들이 사회복지사들을 찾아오게 했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점점 널리 인용되어 졌다. 학자들이나 실천가들 모두 여성의 개인적인 문제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서 표출되는 부정적 측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여성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이 그녀가 많은 다른 여성들과 공유하는 사회환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혹은 그러한 사회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은 여성의 문제를 이해하게 된다(Gottlieb, 1995:2518).

대부분의 여성들은 인종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단일한 특성에 의해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성들의 독특한 결합에 의해 동일시한다. 이러한 여성 클라이언트들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들은 여성에 관한 새롭고 다양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난 후에 실천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여성주의의 영향을 받

1) 조홍식 외(2000), 《여성복지학》, 학지사 刊과 김인숙 외(2000), 《여성복지론》, 나남출판사 刊을 참조할 것.

은 사회복지사들은 여성을 “특별한 인구층”으로 간주하고, 여성을 사회 정치적 맥락에서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근거해서 여성들의 이슈를 정의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빈곤, 건강, 취업, 교육 등의 영역에서 성(*gender*)에 따라서, 즉 여·남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Bricker-Jenkins & Lockett, 1995:2529). 특히 사회복지가 발달했고 여성에 대한 인식도 앞서있는 서구 선진국가와 현저하게 다른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여성들만의 독특한 문제와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정책결정이나 서비스 제공 및 임상적 실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2. 여성주의의 정의와 관점들

1) 여성주의의 정의

Humm은 여성주의(*feminism*)를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위한 독트린과 단순한 개념으로서의 사회적 평등을 뛰어넘는 세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모든 이데올로기를 통합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성은 성의 차이로 인하여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믿음이 모든 여성주의적 접근법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성주의는 여성의 해방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1995:94). 최근에 여성주의 학자들에 의해 발간된 책에 의하면, 여성주의는 사회에서 성차별, 성에 따른 불평등 존재의 인식과 시각을 제공해 주는 거시적인 이론들이며 동시에 이 같은 억압을 폐지하고 남녀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실천적 의지를 담고 있는 이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창현 외, 2001:30). 이들은 성별 이데올로기를 지양하고, 성별 위계질서에 입각한 사회관계와 이에 따른 사회불평등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2001:32). 여성주의가 사회적인 문제를 정의 내릴 때,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할 때, 사회적 성(*gender*)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은 당연하다. 즉 여성주의는 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여러 시각이 존재하지만 사회정책이나 사회복지 실천이 여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처럼 여성주의는 이론과 관점의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고 있다. 다양한 집단들이 오랜 운동을 통해서 여성주의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정의를 발달시켰던 것이다(Nes & Iadicola, 1989:12).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

이 합의할 수 있는, 즉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사실 여성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몇몇의 불란서 이론가들은 'feminism'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성주의는 단순히 하나의 이즘(ism)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이다(Humm, 1995:95에서 재인용).

2) 여성주의의 관점

여성주의자들은 성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현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이의 원인이나 개선책 또는 접근방법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관점들—자유주의, 급진주의, 사회주의—의 핵심적인 이론과 이와 관련된 쟁점들 그리고 세 가지 관점에 대한 비판 등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의 이론적·사상적 기반은 자유주의 사상(*liberal feminism*)이다. 자유주의는 이성이 인간의 본성이며,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평등하다고 간주한다. 이러한 생각은 봉건적 신분 질서를 파괴하는 해방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자들은 인간의 평등사상에도 불구하고 남성중심의 관습과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여성의 발전이 저해됐고 결과적으로 남녀간에 불평등이 생겨났다고 주장한다(Friedan, 1977). Jaggar는 여성을 개인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집단으로 제한하면서 사회가 여성에게는 평등권의 가치를 여기고 있다고 주장한다(1983). 즉 여성이 남성보다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존재로 보이는 것은 타고난 본성 때문이 아니라, 여성을 가정에 한정시키고 교육과 사회적 진출을 제한해 왔던 부당한 사회적·문화적 관습 탓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여성차별이 사회의 구조적인 속성에서가 아니라 제도의 부수적인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체제 자체에 도전하기보다는 현존하는 사회제도 내에서 여성 권익을 신장하는데 주력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에 관하여 본다면, 대표적인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자인 Woolstonecraft는 여성과 남성이 좀 더 양성적인 환경에서 양육된다거나 여성에게도 남성에게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교육환경이 제공된다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Saulnier, 1996:12에서 재인용). 이런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초기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자들은 사회변화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동등한 교육을 위해 투쟁했던 것이다 (Jaggar, 1983).

여성들은 또한 노동시장에 참여했을 때에도, 여전히 남성과 동등한 노동자가 아니라 케어기버(caregivers)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남성과 동등한 일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덜 받는다.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불평등을 지적하고 여성도 남성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권리가 있고 동등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동일 작업에 따른 동일한 급여”는 이러한 제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여성들에 의하여 사용된 대표적인 슬로건이었다. 결론적으로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자들은 억압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와 모든 여성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그들은 온정주의적인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도 여성들은 평등을 획득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기성 사회체제 안에서의 여성의 권익 신장이며 이것도 전체 여성이 아니라 일부 여성, 즉 이미 사회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있는 중산층 여성에만 해당된다.

자유주의 여성주의자들의 가장 큰 약점은 공적인 이슈와 사적인 이슈를 분리했다는 것이다.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적인 영역인, 법적·사회적으로 개입할 수 없으므로 이 문제를 개인의 해결에 맡겨 두자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관점을 가진 여성주의자들은 공공의 복지문제를 포함한 사회개혁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극히 부분적인 제도 개혁에 관심을 국한시킨다. 그러나 불평등한 사회구조 자체를 그대로 둔 채 과연 남녀차별의 철폐와 남녀 평등의 확보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즉 개인의 자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성차별에 기반한 여성주의보다는 성별-중립적인(sex-blind)인 인본주의를 도모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듯 자유주의적 관점은 여성 문제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부족했고 소수의 중산층 여성을 중심으로 한 개인주의적 접근에 치중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2) 급진주의적 여성주의

1960년대 후반 서구 사회에서 거세게 일어났던 여성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관점이 급진주의적 여성주의(radical feminism)이다. 이 운동의 경향은 자유주의적 여성주의가 여성고유의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판한다. 즉 남성과 다르게 여성이 고유하게 경험하고 인식하는 측면과 성적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주의적 여성주의자들이 계급관계를 중시하면서 계급 분석과 성차별 분석의 통합을 주장하는데 반해, 이들은 가부장적 관계로 인해 여성억압이 발생했음을 강조한다(한국여성정책 연구회, 2000:102). 이들은 여러 억압들 가운데서 여성 억압이 역사상 최초로 나타났으며, 가장 널리 퍼져 있고, 가장 뿌리깊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여성집단을 지배하며 그들을 종속시킴으로써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남성집단이라는 것이다. 남성이 권력을 행사하는 가부장제는 제도적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여성억압의 근본원인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남녀대립을 강조하는 이들은 여성억압의 핵심고리도 법, 제도, 노동보다는 출산이나 섹슈얼리티 등 '여성'으로서의 특징에서 찾는다. 즉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돼 온 사안들이 이들에게는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구호는 이런 발상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Nes와 Iadicola에 의하면, 급진주의적 여성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첫째, 여성들이 그들의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구속받지 않아야 하며, 둘째, 자기결정이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제한 받지 않는 것처럼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셋째, 남녀 모두 자신들의 발달을 제한하는 억압체계를 유지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완전한 성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989:14).

20세기 급진주의적 여성주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본적인 아이디어에 근거하고 있다고 Saulnier가 지적하고 있다. ①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② 여성들은 억압받는 계층이며 가부장제가 이런 억압의 원천이다; ③ 가부장제는 심리적이고 생물학적 요인에 기초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강요한다; ④ 여성과 남성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⑤ 남성의 지배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회는 철저하게 변해야 한다 — 점증적인 변화는 불충분하다 —; ⑥ 모든 계급은 제거되어야 한다(1996:32).

이와 같이 이들의 관점은 이전에는 진지한 탐구의 대상이 되지 않던 성애,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사적인' 문제를 정치적이고 학문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공로가 있다. 또한 가부장제라는 용어를 일반화하면서 여성 대중의 광범위한 의식화 작업에 기여했으며 이론적으로도 여성 억압 체계에 대한 분석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창현 등의 연구에서는, 급진주의 여성주의의 주요한 공헌은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얼마나 뿌리깊은 것이며, 얼마나 다양한 국면에서 여성의 삶을 지배하는가를 밝혀 낸 것이다(2000:44).

그러나 가부장제의 보편성과 불가피성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이들의 입장은 하류층의 여성이 겪고 있는 빈

곤의 원인에 대해 설명해 주지 못하였으며, 모든 현상을 남녀 대립이라는 틀로 설명함으로써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그들은 두 종류의 피조물 — 타락한 남자와 순진무구한 여자 — 을 고정화시킴으로써 모든 남녀의 개별성과 역사성을 부인하고 있다(이소영, 1995:209~214). 또한 모든 남성을 적으로 상정함으로써 대다수 여성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데 실패했다.

(3)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1960년대 후반 이후 여성주의 운동에는 급진주의적 여성주의 이외에도 사회주의적 여성주의가 있다. 이들이 보기에 급진주의적 여성주의는 여성들 내부의 계급적 차이에 대한 배려가 없으며 가부장제 개념도 몰역사적으로 적용한다고 비판한다.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에 대해서는 여성억압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며 성이라는 분석범주를 무시한다고 비판한다. 가부장제만을 강조하는 급진주의적 여성주의나 자본주의체제가 여성억압을 낳는 근본구조라고 여기는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와 달리, 현재 여성의 문제를 단지 계급이나 성적 측면이 아닌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영향을 고루 접합시켜서 이해하고자 했다. 이때 성별분업은 가부장제를 발생시키고 재생산해 내는 주요 기제라고 본다(이창현 외, 2000:45).

이와 같이 이들은 가부장제에 역사성을 부여하고 유물론에 성이라는 범주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이론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즉, 가부장제만을 여성 억압 체계로 보는 급진주의나 여성 억압을 낳는 근본구조를 자본주의 체제로 보는 마르크스주의 입장과 달리, 현재 여성의 문제는 자본주의체도와 가부장제도의 결합을 통해 빚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주의 여성주의 운동은 정치-경제적 체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또 경제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는 모든 집단들의 연합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나 급진주의적 여성주의보다 성공적이었다고 한다(Saulnier, 1996:63).

그러나 여성억압이 성적 위계와 계급적 착취의 결합으로 빚어진다는 애초의 문제의식을 제대로 해명하는 일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관점은 가부장제 분석과 자본주의 분석을 서로 긴밀히 결합하기보다 단지 기계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두 체계간의 관계와 내적 역학 등을 명료하게 설명해 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3.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여성주의 시각의 중요성

Collins는 사회복지와 여성주의는 가치나 철학에 있어서 서로 공유하는 점이 많이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회복지의 본질은 여성주의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1986:214~217). 사회복지실천에서 강조되는 '환경 속의 인간'과 여성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관점은 매우 깊은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대한 생태학적인 관점에 기초한 사회복지의 통합적인 사고는 여성주의 사고와 일치한다. 사회복지와 여성주의적 사고는 각 개인의 안녕, 존엄성 그리고 자아결정을 지지하는 개인과 환경간의 교류를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관계는 소외 지향적인 것과는 반대로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결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주의적 시각의 사회복지 실천은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과 이론적으로는 유사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 둘은 모두 개인과 지역사회간의 관계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의된 욕구간의 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상기의 두 가지 실천은 개인의 존엄성이나 자기결정의 권리(*rights of self-determination*)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Van Den Bergh & Cooper, 1986:3). 그러나 여성주의적 시각의 사회복지 실천은 기존의 조건에 도전하기보다는 도리어 적응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회복지의 전통적인 경향과 다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성주의적 시각의 사회복지의 기존 사회에 존재하는 관계나 과정 그리고 제도를 변화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Van Den Bergh & Cooper, 1987:611). 그렇기 때문에, 여성주의적 시각의 치료는 전통적인 임상치료법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생성되었다고 Gilbert는 주장하고 있다(1980:246). 그에 의하면 전통적인 임상접근법은 현재의 상태에 대하여 도전하기보다는 단순히 적응하기를 권장할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간의 성차별적인 가정을 인정하며 이것을 근간으로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여성주의적 시각의 서비스는 이데올로기나 사회구조 그리고 개인의 행동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가정에 근거해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Brodsky & Hare-Mustin, 1980:242).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의 증상은 전통적인 성역할 가정에 대하여 당연히 찬성한 결과라고 여성주의적 시각의 치료자들은 믿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여성들은 적극적이고 독립적이며 주도적(*proactive*) 이기보다는 소극적이고 의존적이며 반응적(*reactive*)으로 행동하도록 교육받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여성주의 시각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 내재된 권력의 불균형에 관심을 갖고 있다. 여성주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권력불균형에 입각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력계급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실천가는 클라이언트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리인일 뿐이라는 것이다.

Davis에 의하면, 클라이언트들이 그들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그들을 '치료하는 힘'(healing power)을 갖고 있다는 등의 미신적인 개념에 기초한 관계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1985:107~110). 그리고 치료관계에 있어서나 클라이언트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그들의 역량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여성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치료방법에서는, 클라이언트 자신들에게 책임이 주어지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보도록 권장하고 그들의 권력이 양도된 과정에 대하여 잘 인식하도록 요구한다(Collins, 1986:216).

지난 30여 년 동안 활발하게 진행된 여성운동은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 기관들에게 기존 사회에서의 여성만의 특별한 위치나 그 결과 남성과 여성이 당면하게 된 문제에 민감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성차별의 결과는 사회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인식한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이나 실천의 방법으로서 여성주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여성주의적 시각의 가치와 사회복지 실천가치는 여러 부문에서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실천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을 무시한다면, 기존의 성차별적 지식에 다시 의존하거나 사회제도 내에서의 여성 억압적 관계를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사회복지 실천은 환경 속의 인간을 강조하지만, 사회제도(환경)를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개인을 환경에 적응시키는 작업에만 몰두하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즉 Wenocur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제가 있는 제도' 자체를 고치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제도'에 반창고를 붙이거나 클라이언트들을 그 제도에 적응시키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다(1992:289).

여성주의에 입각해서 여성만의 독특한 심리적인 발달이나 여성의 욕구 등에 관하여 좀 더 세밀하고 사려 깊은 이해를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중의 절반이 넘는 여성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데 필수적일 것이다(Lawrence, 1994:32).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여성주의의 기본철학과 가치, 그리고 이에 따른 실천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사회복지 실천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조홍식 외, 2000:158)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4. 여성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사회복지 실천

여성주의는 하나의 비전이며, 실천사항이며 이데올로기이다. 그것은 경쟁적이고, 계급적이며, 권위주의적 관계의 세계로부터 성적(*gender*), 인종적 평등에 기반한 세계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여성주의는 공적인 생활이나 사적인 생활을 조직하고 생산하는 과정이나 태도를 바꾸는 데에 개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주의는 기존의 경제, 사회, 정치적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관심을 두는 정치적 관점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여성주의는 지배의 개념을 종식시키며, 억압에 대하여 저항하는 일에 최대한의 관심을 둔다. 여성주의는 여성들에 의해서 생겨난 비전이지만,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포함하며, 가난한 사람들,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시키는 개념을 의미한다(Van Den Bergh & Cooper, 1986:1~2). 즉 여성주의는 휴머니즘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Garvin과 Reed에 의하면, 여성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 실천이란 여성주의의 원칙을 개발하고, 적용시키고,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했다. 여성주의의 원칙은 실천한 것을 사정(*assessing*)하고 검토하기 위한 지침으로 다시 사용될 수 있다(1995:42).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여성주의적 시각에 의한 사회복지 실천의 원칙과 직·간접 사회복지 실천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여성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사회복지 실천의 원칙

여성주의 운동을 연구하는 Withorn에 의하면, 운동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주로 인종문제, 동성애 문제, 계급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 운동은 사회복지실천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을 반영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도 계속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1984:227). 그녀에 의하면,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에 평등한 관계를 옹호하는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방법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여성주의적 시각의 실천에서는 실천의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여성주의적 시각의 사회복지의 실천에서는 서로의 욕구를 아는 것이나 상호의존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서로를 돌보기 위하여 이전과는 다른 인간적이고 책임 있는 방법을 개발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Withorn, 1984:227).

전술한 대로, 여성주의적 실천(*feminist practice*)과 사회복지 실천(*social work practice*)

은 서로 공유하는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Collins, 1986:215~217). 여성주의의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the personal is political*)이다'라는 관점은 사회복지 실천의 '환경 속의 개인(*person-in-environment*)' 패러다임과 일치한다. 즉, 여성주의적 실천과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공통적으로 개인과 환경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결성을 강조한다. 또한 여성주의적 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실천가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내재함을 지적하고 클라이언트와 실천가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실천 역시 클라이언트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여권주의적 실천과 일치한다. 더욱이 클라이언트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역량강화(*empowerment*)를 경험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도 여권주의적 실천과 사회복지 실천은 상호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사실 여성주의 사회복지 실천은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과 이론적인 면에서 비슷한 점도 있지만 이전의 방법에 비하면 급진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양쪽 모두 개인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또는 개인적이나 사회적으로 정의된 욕구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의 권리나 인간의 존엄성에 관하여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개인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도 추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이런 점에서 본질적으로 여성주의 원칙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Van Den Bergh & Cooper, 1986:3). 사회복지 교육이나 실천의 모든 분야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여성주의에 입각한 분석의 원칙은 다음의 5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잘못된 이분법적인 사고나 인위적인 분리의 제거, 권력의 재개념화, 결과와 동등하게 과정을 중시하는 사고, 재명명(*renaming*)의 합법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라는 믿음 등이다. 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Van Den Bergh & Cooper, 1986:4~10), 다음과 같다.

(1) 잘못된 이분법적인 사고나 인위적인 분리의 제거(Eliminating False Dichotomies and Artificial Separations)

여성주의적 분석은 사회의 모든 현상의 상호관련성(*interrelatedness*)을 강조한다. 이는 개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를 계속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생태학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잘못된 이분법은 위험하고 결과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행동양식을 강화시켜준다. 예를 들면, 지배와 종속의 개념에 의한 이분법은 "어느 한 편(쪽)의 - 또는(*either - or*)"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한 쪽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 한 쪽이 패배해야 하는 '제로섬' 양식을 취하게 된다. 이렇듯 잘못된 이분법이 만연하기 때문에 압박 받는 집단사이에서 내분이 자주 발생한다. 아주 작은 부분(*slice of the pie*)을 얻기 위해서, 억압받는 마이너리티들은 공통의 억압자에 대항해서 집단적으로 행동하거나 공통점을 인식하기보다는 "우리 대 그들(*us versus them*)"이라는 경쟁적인 생각으로 서로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행동양식으로 인하여 사람과 지역사회가 소외되고 분리되는 것이다.

여성주의가 상호관련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존의 사회, 정치, 경제적 상황으로는 사회의 대다수 성원들이 만족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여성주의는 보다 진화된 사회적 패러다임의 이면에 있는 동력으로서 통합적이고 생태학적 그리고 정신적인 관점을 이용한다. 여성주의적 정치 분석은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권력구조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덧붙여서 여성주의 정치는 집단적이고 통합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강조한다. 개체를 분리시키고 전체를 서로 다투는 요소로 나누는 것은 가부장적인(*patriarchal*) 과정의 핵심요소라는 것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가부장적인 과정은 계급적인 조직과 서열을 위한 방식이다.

(2) 권력의 재개념화(Reconceptualizing Power)

권력은 여성주의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여성주의자들은 권력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와 사용에 도전하는 것이다. 여성주의자들은 가부장적인 권력의 개념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력은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통제되는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통적인 권력의 개념에 의하면, 권력은 소유이고 돈과 유사하며, 하위자(*subordinates*)들을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통제와 지배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마음대로 관리하며 목표를 독단으로 결정한다. 정보는 폐쇄적이며 규정은 주로 하위자들의 행동을 책망하기 위하여 세워진다(Hooyman, 1980:6). 권력의 통제를 통해서, 가부장적인 방식은 하위자들의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하위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Van Den Bergh & Cooper, 1986:5). 그러나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권력은 사회를 강화시키며, 효과적으로 만들며, 책임성 있게 만드는 무한하고 폭넓게 퍼져있는 에너지로 다시 정의되고 있다. 즉 권력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助長的인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권력(*personal power*)을 요구하고 역량을 강화(*empowerment*) 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에게 자신의 삶

을 스스로 통제하며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한 능력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과정의 중요성 인식(Valuing Process Equally with Product)

목적이 어떻게 달성되는가 하는 문제는 목적 그 자체 못지 않게 중요하다.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여성주의적 전망은 “목적의 중요성은 그것이 추구하는 방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강압적이고 불평등하며 다른 억압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취한 목적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정하는 과정은 최종적인 결론 못지 않게 중요하다(Van Den Bergh & Cooper, 1986:7). 예를 들면, 적절한 아동보호나 직업훈련 없이 공공부조 수혜자인 여성들에게 일을 요구하는 제도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표는 현재의 일을 강제하는(workforce)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과정은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고 쉽게 만드는 힘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권력을 다시 정의하는 것과 방법(과정)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성주의적 조직 운영 형태는 모든 참석자가 아젠다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의견을 개진하도록 용기를 북돋워주며, 이슈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는 데 있어서 참석자들을 편안하게 만든다. 게다가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작업장내에서 동료나 슈퍼바이저 등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갖기 위해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환류나 비판을 용이하게 하며, 따라서 개인은 인증(validation)과 불만족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4) 재명명의 합법화(Renaming)

자기 자신의 경험을 명명하는 권리는 모든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주의자들에게 필요한 아젠다이다. 민권운동의 예를 통해서 고무되었기 때문에, 여성주의자들도 운동초기에 명명(naming)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사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명명하는 가는 자신의 정체성(identity)과 자신을 인지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재명명하는 것은 4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Van Den Bergh & Cooper, 1986:7~8): (1) 사람, 장소, 사물에 새로운 단어 나 부호를 적용해 보는 것; (2) 언어의 형태를 바꿈으로서 그 의미를 바꾸는 것; (3) 고전적인 의미를 다시 음미해 보는 것; (4) 기존의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개념적으로 확대해 보는 것이 있다.

각각의 단계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독특한 경험을 통제하거나 무시하기 위해서 사용되

는 지배문화 언어의 권위와 권력에 도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²⁾ 여성주의 학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재명명 할 권리를 갖게 되면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Van Den Bergn & Cooper, 1987:612).

(5)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The Personal is Political)이라는 생각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사고는 여성주의 운동 초기의 의식화 행위와 관련되어서 처음으로 표현되었다. 이 사고는 여성주의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인간이 품고 있는 가치나 신념, 인간이 세운 목표, 인간이 추구하는 생활 스타일의 형태” 등은 정치적인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이해로부터 발전되어 왔다. 이것은 개인의 행위와 사회구조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성주의적 원칙은 개인적인 행위나 행동을 사회구조와 연계시켜서 이해한다. 사회운동은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또 개인의 행동이 집단적으로 추구될 때 사회운동을 발생시킨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사고는 사회제도내의 변화를 완성하면 개인생활의 문제도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도에 도전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새롭게 설정하도록 촉구한다. 그러한 변화는 개인의 역기능적인 행동 패턴을 수정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제도적인 구조의 변화는 개인들에게 그들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이나 제도의 수정을 동반할 사회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프로이드 심리학이나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윤리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프로이드 심리학이나 개인주의는 ‘희생자 비난(victim blaming)’의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구조적인 불평등을 언급하지 않는다.

상기의 원칙들을 사회복지에 접목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한 일이다(Van Den Bergh & Cooper, 1986:10). 왜냐하면 이러한 원칙들은 현재 사회복지의 우선 순위 새롭게 정할 수 있는 비전이나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각 원칙은 기존의 권력, 권위, 사회복지의 실천이나 정책·프로그램의 역동성에 관하여 도전하고 있다. 여성주의 비전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돌아보는 것은 전문적 실천과 교육이 더욱 통합적이고 생태학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Van Den Bergh & Cooper, 1986:25). 사회복지 교육이나 실천을 위한 여성주의적 시각의 비전은 여성 이슈만을 나타냈을 때보다 더욱 광범위해지고, 더욱 포괄적이 된다.

2)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예는 Van Den Bergh와 Cooper가 편집한 책, *Feminist Visions for Social Work*, pp. 7~8을 참조할 것.

2) 여성주의 시각에 입각한 사회복지의 직접적 실천

여성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사회복지의 실천은 하나의 기법이나 혹은 하나의 실천학파가 아니며, 이는 다른 존재방식으로서 서로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가지고 다른 가치와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 Chaplin에 의하면, 여성주의적 시각의 사회복지 실천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회, 소위 말하는 '여성적' 가치와 사고방식이 소위 말하는 '남성적' 가치와 사고방식만큼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훈련하는 것이라고 한다(조홍식 외, 2000:160에서 재인용). 즉 이러한 실천방법에서는 여성이나 남성 중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강조한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Marecek & Kravetz, 1977; Rawlings & Carter, 1977), 여성주의적 시각의 실천은 다음의 3가지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데, 첫째, 인간행동에 있어서 성차별 적이고 '가부장제'적 구조(*patriarchal structures*)가 끼친 영향에 대한 인식, 둘째, 자율적이고 자아실현적인 개인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 셋째, 평등주의적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구조를 발달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원칙을 다른 문헌에 의하면(Israel, 1984; Bricker-Jenkins & Hooyman, 1984; Lowenstein, 1983; Marecek & Kravetz, 1977; Rawlings & Carter, 1977), 여성주의적 시각의 개입에 사용되는 공통적인 지침이 7가지 있다고 한다(Van Den Bergh, & Cooper, 1987:613).

첫째, 클라이언트들의 문제를 사회 정치적인 구조들 안에서 해석한다. 여성주의적 개입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관계에 근거한 모든 사회적, 정치적 구조의 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원칙을 강조하는 적절한 표현으로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을 사용함으로써 치료자는 클라이언트 자신들의 문제가 남·여간 불평등한 관계에 기인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둘째, 전통적인 성역할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클라이언트들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준다.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증을 이행하도록 사회화되고 있음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클라이언트들은 양성적인(*androgynous*) 성역할 레퍼토리를 개발하도록 지지받는다.

셋째, 치료는 병리(*pathology*)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장점을 확실하게 하고 증대시키는 일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치료는 역량강화 과정에 많은 관심을 두는데, 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정할 수 있

는 능력을 증대시킨다. Weick 등에 의하면, 이러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증후군이나 행동상의 문제를 강조하기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장점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1989:353).

넷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독립적인 정체성(*identity*)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준다. 여성들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책임을 과중하게 지는 경향이 있으며,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이나 관심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주의적 시각의 접근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들은 개인적인 장점을 개발하고 개인적인 숙련을 추구하도록 도움을 받는다.

다섯째,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재평가(*reassessment*)하도록 지지 받는다. 그 이유는 여성들간의 유대관계가 남성과의 관계를 발달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여성들은 자신들을 과소평가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들은 서로를 비하하거나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곤 한다. 그러나 여성주의적 시각의 접근에서는 여성들을 매우 가치가 있는 존재로 평가한다.

여섯째, 일(*work*)과 인간간의 관계 사이에 균형을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둔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경제적인 책임(*economic provider*)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양육자(*nurturer*)가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한다.

일곱째, 가능하면, 치료자와 클라이언트간의 개인적인 권리가 항상 동등하도록 접근한다. 이것은 여성주의적 시각의 치료자는 그들 자신을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도리어 그들은 클라이언트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자(*catalyst*)로 활동한다. 치료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재개념화는 지배-복종의 관계를 제거하려는 여성주의적 시각의 관심에 기반한 것이다.

이러한 지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적 시각의 치료는 기존의 방법과 분리된 나름대로의 임상적인 접근법을 발달시키지는 않았다. 한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기보다는 도리어 전통적인 치료방법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Marecek & Kravetz, 1977).

여성주의적 시각의 치료자들은 사회가 치료를 위한 중요한 배경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들간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주창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경향의 치료자들이 클라이언트들이 처하고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다하더라도, 최소한 클라이언트들에게 환경적인 현실이 자신들의 어려움에 끼친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Van Den Bergh & Cooper, 1987:613). 이러한 인식이 환

경의 불리한 조건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계획을 수립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3) 여성주의 시각에 입각한 사회복지의 간접적 실천

간접적 실천에 있어서 여성주의 원칙을 포함시키는 것은 서비스 전달을 과거, 현재, 미래의 상호관련성에 관심을 두고 좀 더 통진주의적(*holistic*) 방법으로 서비스를 전달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 비행의 치료를 위한 기획에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고립과 격리를 원칙으로 하는 치료방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소년원에 가두는 것은 그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증가시키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은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만연한 약물중독이나 높은 실업률 및 낮은 교육정도를 지역사회가 효과적으로 다루도록 돕지 못할 것이다. 상호연관이 사회복지의 근본이 될 때, 정책이나 기획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과 지역사회 주민간의 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서, 서비스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방법은 프로그램 목적과 상반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조장하기 위해서 고안된 서비스는 엘리트주의에 근거해서도 안되고 지역주민을 고립시키는 과정에 근거해서도 안 된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인구를 위해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단계나 실행단계에 소비자를 참여시켜야만 한다. 소비자 참여는 권장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격리 과정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불안정, 소외 그리고 저조한 참여를 초래할 것이다. 통합적 과정은 전폭적인 참여를 조장하면서, 안정감과 상호연관성을 증진시킨다.

간접적인 실천에 있어서 권력의 재개념화는 정보와 기술이 공유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특히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입장의 핵심적인 논쟁은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며 공공의 영역에서도 그렇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aulnier, 1996:22). 여성주의와 전통적인 매크로 실천이론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가 권력에 대한 정의와 규정이다. 여성주의 시각에서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본다. 그것은 제로-섬 접근방법이 아니라, 다른 한 쪽이 역량이 강화될 때 양쪽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것이다. 상대방 위에 균립하기 위해 권력을 유지하기 보다 상대방을 역량강화 시키는 것이 관리자나 지도자의 주요한 업무의 일부가 되고 있다(Brandwein, 1987:889).

여성주의 접근법은 과정과 결과를 동등하게 중시하는 가치를 지향한다. 다른 말로 하

면, 정책이나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는 가는 무엇이 실행되는가와 똑같이 중요하다. 즉 '어떻게'가 '무엇을'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라는 견해를 포괄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상호간의 관심은 정치적 또는 정책적 이슈와 분리될 수 없으며 이 두 요소는 서로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Brandwein, 1987:889). 노동자들의 독특한 경험과 관점 또한 각 노동자들의 욕구만큼이나 중요하다. 이와 같이 다양성에 가치를 두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과정지향성(process orientation)을 반영한다. 시작과 끝이 있는 단기적인 현상으로서 어떤 일에 개입하기보다는 여성주의 접근방법은 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파악한다. 따라서 인간 상호간의 관계는 중요하며, 행위는 고립된 현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된다. 그리고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과정지향의 장점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참여자들이 각자 맡은 업무를 행하도록 더 많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행정에 있어서, 여성주의 접근방법은 기능의 순환(rotation of function), 행렬조직(matrix organization), 종업원의 개발(employee development)에 대한 관심을 강조한다. 이로 인하여 전통적인 기관구조에서 완전하게 평등할 수는 없지만(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그 계급은 무의미해지고, 집합적인 의사결정(또는 대다수 하위자들의 참가)이 권장되고, 과정과 인간상호간의 관계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성주의 접근법에 의하면,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과업을 완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증진시킨다는 것이다(Brandwein, 1987:889~890).

특히 자유주의 여성주의자들은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의해서 유지되었던 행정적인 자리를 위해서 여성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초미의 관심을 둔다. 이러한 관심은 여성들이 받아왔던 기존의 사회화를 극복해서 남성들의 세계로 진입하여 그들과 경쟁할 수 있게 만든다고 주장한다(Saulnier, 1996:23). 급진주의 여성주의자들은 이미 의미가 퇴색된 행정가와 스텝, 그리고 클라이언트간의 잘못된 분류법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조직의 구성원들은 기부자나 행정가보다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책임감을 더 느껴야 한다고 한다. 특히 급진주의 여성주의자들은 행정에 있어서 과정을 중시하며,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추구하며, 여성들의 약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의 장점을 더욱 지지한다(Saulnier, 1987:46~47). 사회주의 여성주의자들의 행정적 견해는 Ramsey와 Parker가 제안한 新관료주의(neobureaucracy)의 개념에 잘 들어있다. 그들에 의하면, 새로운 관료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하나는 조직의 정체성에 대한 저항에 있다고 한다. 또한 전문가를 인정은 하지만 전문화(specialization)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오직 전문가만이 조직의 과

업을 통치해야 한다는 가정을 거부하고, 팀워크(*teamwork*)와 집단성취(*group achievement*)가 경쟁이나 개인이 성공을 독점하는 것을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992:70).

5. 나가는 말: 결론과 제언

1) 결론

여성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사회복지에서는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을 원조하는 것만큼이나 환경적 혹은 구조적 변화의 추구를 중시한다. 여성주의적 시각의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단지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사회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에이전트로 불리기를 바란다. 이것은 사회복지계나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의 착취나 억압에 도전할 만큼 충분한 잠재성이 있다는 것을 일반대중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성주의에 입각한 실천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원칙이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개인적인 것과 일(*work*)의 관계가 분리되어서도 안 되며,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한 방법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현재의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의 경험은 마르크스의 소외개념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여성주의 이론가 Jaggar는 주장하고 있다(1983:308~317).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정의되고 경험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특별한 종류의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만약 여성들이 필연적으로 서로 도와야 할 타인이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고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여성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슈이다(Collins, 1986:216).

최근까지 여성주의 사회복지의 주된 관심사는 강간,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 등과 같은 여성중심의 실천에 있었지만 이제는 약물중독, 건강보호, 아동복지, 빈곤 등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Bricker-Jenkins & Lockett, 1995:2529). 다른 분야의 실천과 마찬가지로 여성주의적 시각의 사회복지실천은 정치·경제적인 맥락이나 관심의 상호작용에 관한 원칙을 적용하고 표현하는 기술과 방법들을 발달시키고 있다. 여성주의 시각의 사회복지 실천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관점을 지향한다. 이것은 단지 여성들만의 실천이나 이슈가 아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로서 이전과는 다르게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위협을 감수하는 도전적이면서 변화와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행동주의 양식이

다. 여성주의적 시각의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의 독특한 사명을 달성하며, 사회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삶의 질을 증가시키려는 생동적인 방법이다.

여성주의 시각은 기존의 사고와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으로서, 가부장적, 위계적 사회구조 혹은 사고와 일치하지 않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여성주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상주의적 차원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비현실적인 기대와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상황의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의 의식고양 혹은 독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상당한 현실적인 위협과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더욱이 공식적인 사회적 자원 혹은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상주의에 치우친 여성주의적 시각의 실천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조홍식 외, 2000:184).

사회복지 실천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기존의 성차별적 지식에 의존하거나 가정과 대인관계, 사회제도 내에서의 여성 억압적 관계를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사회복지 실천에서 개인과 환경간의 적합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개인과 환경의 적응적 과정을 추구하는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여성주의의 기본 철학과 가치, 이에 따른 실천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사회복지 실천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조홍식 외, 2000:157~158).

2) 제언

사회복지사는 여성주의적 시각에 근거한 실천이 사회복지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하여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며,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숙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회복지 전문직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논쟁 중의 하나는 사회복지 분야가 사회에서 가장 상처를 받기 쉽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느 정도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몇몇의 실천가는 임상사회복지 실천분야의 급속한 성장이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한 사회복지계의 전통적인 관심을 위협하고 있다고 믿는 반면, 다른 실천가들은 임상사회복지 실천분야의 성장이 사회복지 전문직을 강화시키고, 사회복지 분야의 입지를 제고시키며, 고유의 목적을 더욱 격려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사들이 이러한 경향의 장·단점에 관하여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는 것은 — 특히 저소득층 사람들이나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논쟁 — 매우 중요하다.

여성주의적 시각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 관하여 사회복지 분야에서 더욱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 첫째, 훈련(training)과 교육 프로그램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 사회복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 기관은 그들의 커리큘럼이나 훈련 아젠다에 포함되어 있는 이와 관련된 주제를 더욱 정밀하게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이나 실천가들이 여성주의적 시각과 관련된 가치와 이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이 전문직의 소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서도 체계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지해 주어야 한다.

둘째,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기획하는 사람들(planners)들이나 이를 주최하는 측이 여성주의적 시각에 기반한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 등에 우선 순위를 두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의 계속 교육 또는 재교육(continuing education)은 대부분 전문가 협회나 기관들의 후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회 등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획되는 이벤트들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여성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실천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은 이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기금 조성에 기여해야만 한다. 사실 1990년대 중반까지도, 이 주제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이 분야에 관한 학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고 보여진다. 사실 이 영역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는 여전히 미비하다. 여성주의적 시각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윤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나 과정에 관하여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 없는지에 관한 실천가들의 신념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성주의 시각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성주의적 시각의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와 이론적인 발전이 앞으로 더욱 필요할 것이다.

여성주의 시각에 의한 사회복지 실천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실천이나 학교 교육의 내용과 구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사회학과나 여성학과에서 개설한 '여성학'을 선택으로 수강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학과에서 이와 관련된 과목을 적극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나 현장의 실천가들은 억압이나 무기력이 여성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도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들 또한 특별히 집단 사회사업 실천이나 지역사회조직 사업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에 의한 접근 방법들을 시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이미 여성주

의 시각에 의한 사회복지 실천을 행하고 있는 조직들은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회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며 해결하려 하며, 기존의 개입의 방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을 지지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여성주의 시각에 의한 사회복지 실천이 사회복지 방법의 주류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여성주의 시각에 의한 사회복지 실천은 매우 도전적이며 또한 보람을 주는 것이다. 여성주의 시각의 사회복지의 그 동안 여성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절망감과 무관심한 태도로 보았던 것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시각의 테크닉이 효과적으로 적용된다면, 여성들의 문제와 문제해결에 있어서 그들 자신의 개입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앞으로 여성주의적 이론과 기술로 무장된 사회복지사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기존의 사회복지 효과성에 관한 재평가나 개념적인 재정의를 실천하는 도전적인 전문가가 되기를 사회는 기대할 것으로 믿는다.

■ 참고문헌

- 김미혜. 1997. "여성의 생애주기와 사회복지."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복지사회》. 서울: 미래인력 연구센터.
- 김인숙 외 6인. 2000. 《여성복지론》. 서울: 나남출판사.
- 이소영 외 역. 1995. 《페미니즘 사상: 종합적 접근》. 서울: 한신문화사.
- 이창현 외 7인. 2001. 《여성과 사회·정치》. 광주: 조선대학교 출판부.
- 조홍식 외 3인. 2000. 《여성복지학》. 서울: 학지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역. 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서울: 새물결.
- Barker, R. 1995. *The Social Work Dictionary*. 3rd ed. Washington, DC: NASW Press.
- Berlin, S. 1987. "Women and Mental Health: Anger, Anxiety, Dependency, and Control." in *The Woman Client*, by N. Gottlieb & D. Burden(eds.). NY: Tavistock Publications.
- Berlin, S. and Kravetz, D. 1981. "Women as Victims: A Feminist Social Work Perspective." *Social Work*, 26(5), pp.447~449.
- Brandwein, R. 1987. "Women in Macro Practice." in *Encyclopedia of Social Work*(18th eds.). NASW.
- _____. 1995. "Women in Social Policy." in *Encyclopedia of Social Work*(19th eds.). NASW.
- Bricker-Jenkins, M. and Hooyman, N. 1986. *Not for Women only: Social Work Practice for*

- a Feminist Future*. Silver Spring. MD: NASW Press.
- Bricker-Jenkins, M. and Lockett, P. 1995. "Women: Direct Practice." in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ed). Washington, DC: NASW.
- Collins, B. 1986. "Defining Feminist Social Work." *Social Work*, 31(3), pp. 214~219.
- Compton, B. & Galaway, B. 1984. *Social Work Process* (3rd ed.). Homewood, IL.: Dorsey.
- Dominelli, L. and McLeod, E. 1989. *Feminist Social Work*. London: Macmillan Education Ltd.
- Davis, L. 1985. "Female and Male Voices in Social Work." *Social Work*, 30(2), pp. 106~113.
- Friedan, B. 1977. *It Changed My Life*. New York: Dell.
- Garvin, C. & Reed, B. 1995. "Sources and Visions for Feminist Group Work: Reflective Processes, Social Justice, Diversity, and Connection," in N. Van Den Bergh (eds.). *Feminist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 C.: NASW Press.
- Gilbert, L. 1980. "Feminist Therapy," in A. Brodsky & R. Hare-Mustin (eds.). *Women and Psycho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pp. 245~265.
- Gottlieb, N. 1995. "Women Overview."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ed). NASW.
- Hanmer, J. and Statham, D. 1989. *Women and Social Work*. Chicago: Lyceum Books.
- Hooyman, N. 1980. "Toward a Feminist Administered Style." Paper Presented at the NASW First 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Work Practice in a Sexist Society.
- Humm, M. 1995. *The Dictionary of Feminist Theory*. New York: Prentice Hall.
- Iatridis, D. 1983. "Neoconservatism Reviewed." *Social Work*, 28(2), pp. 101~107.
- Israel, J. 1984. "Feminist Therapy." *Women and Therapy*, 2(2 & 3), pp. 157~161.
- Ivanoff, A., Robinson, E., and Blythe, B. 1987. "Empirical Clinical Practice from a Feminist Perspective." *Social Work*, 32(5), pp. 417~423.
- Jaggar, A. 1983. *Feminist Politics and Human Nature*. Totowa, NJ: Rowman & Allanheld.
- Lowenstein, S. 1983. "A Feminist Perspective," in A. Rosenblatt & D. Waldfogel (eds.). *Handbook of Clinical Social Work*.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p. 518~548.
- Lawrence, M. 1994. "Women's Psychology and Feminist Social Work Practice." in *Women, Oppression and Social Work*, by M. Langan, and L. Day (eds.). New York: Routledge.
- Marecek, J. & Kravetz, D. 1977. "Women and Mental Health: A Review of Feminist Change Efforts." *Psychiatry*, 40(4), pp. 323~329.
- Miller, D. 1990. *Women and Social Welfare: A Feminist Analysis*. New York: Praeger.
- Morell, C. 1987. "Cause is Function: Toward a Feminist Model of Integration for Social Work." *Social Service Review*, 61(1), pp. 144~155.
- Nes, J. & Iadicola, P. 1989. "Toward a Definition of Feminist Social Work: A Comparison of Liberal, Radical, and Socialist Models." *Social Work*, 34(1), pp. 12~21.

- Ramsey, K. & Parker, M. 1992. "Gender, Bureaucracy and Organization Culture," in M. Savage & A. Weitz(eds.). *Gender and Bureaucracy*. Cambridge, MA: Blackwell Publishers. pp.253~276.
- Rawlings, E. & Carter, D. 1977. "Psychotherapy for Social Change," in Rawlings & Carter(eds.). *Psychotherapy for Women*. Springfield, Ill: Charles C. Thomas, Publisher. pp.447~463.
- Saulnier, C. 1996. *Feminist Theories and Social Work: Approaches and Applications*. New York: The Haworth Press.
- Stere, L. 1986. "A Reformist Perspective on Feminist Practice." in *Not for Women only: Social Work Perspective for a Feminist Future*, by Bricker-Jenkins, M. and Hooyman, N. (eds). Silver Spring, MD: NASW.
- Tong, R. 1989. *Feminist thought: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San Francisco, CA: Westview Press.
- Van Den Bergh, N. and Cooper, L. 1986. *Feminist Visions for Social Work*(eds). Silver Spring, MD: NASW Press.
- Van Den Bergh, N. and Cooper, L. 1987. "Feminist Social Work." in *Encyclopedia of Social Work*. Silver Spring, MD: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Weick, A., Rapp, C., Sullivan, W., & Kisthardt, W. 1989. "A Strengths Perspective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34(4), pp.350~354.
- Wenocur, S. 1992. "Should Community Organization Be Based on a Grassroots Strategy?" in *Controversial Issues in Social Work*, by E. Gambrill, & Pruger, R. (eds.). Boston, MA: Allyn and Bacon.
- Withorn, A. 1984. *Serving the People: Social Service and Social Chang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Woodward, K. "Feminist Critiques of Social Policy." 외 논문집.